

“아픈 아들 너머로 더 아픈 아이들이 보였다”

(주)한국호머는 1977년 창립 당시 100% 수입에 의존했던 경량철골 천장 및 칸막이자재를 사용한 시공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회사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경량철골 전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하며 동종업계를 선도해왔다.

창업주인 송암 이종우(83) 회장은 2019년까지 경영 일선에 있다가, 4녀 1남 중 귀하게 얻은 늦둥이 막내아들인 이창익(42) 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잔뼈가 굵은 이창익 대표는 “근면·성실하게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정도 경영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서 도와라

이창익 대표에게 유독 엄격한 아버지였다는 이종우 회장은 2002년 송암장악회를 설립해 12억 원의 장학기금을 모교인 영남대에 기탁하는 것은 물론 2019년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며 평생 나눔을 실천해왔다.

“‘나눔이 삶을 결정한다’가 아버지의 좌우명이자 삶의 철학이에요. 자리를 물려주신 후에도 ‘직원들 월급 밀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신신당부하세요. 어렸을 때도 공부 잘해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근면 성실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마흔을 넘기고 보니 유독 제게 엄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박예랑·33)과 결혼 후 상윤(7), 상민(4) 두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그에게 2019년은 희비가 교차한 한 해였다. 대표이사 자리를 갑작스럽게 물려받은 기쁨도 잠시, 돌을 갓 넘긴 둘째 상민이가 림프암의 일종인 ‘랑게스한스조직구증’ 진단을 받은 것이다. 여러 검사를 거쳐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 혈액과 고경남 교수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명을 듣기까지 이창익 대표 부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을 오갔다고 한다.

“정확한 병명을 알고 난 뒤부터 숨이 쉬어졌어요. 아이가 암이라는 데, 그제야 살 것 같더라고요. 진단명이 나온 뒤로는 의료진들이 다양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이창익 대표. 이창익 대표의 아버지인 (주)한국호머 창업주 이종우 회장은 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한 치료법을 제시해주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자그마한 아이가 항암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남한테 나쁜 짓 안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상민이 너머로 더 아픈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아내와 결심했죠. 우리 능력껏 아픈 아이들을 돕자고요.”

이창익 대표는 그 결심을 실천하고자 2020년 12월,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후원했다.

1년여의 지난한 치료과정을 잘 버텨준 상민이는 작년 12월 검사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아프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이창익 대표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는 ‘범사에 감사하라’이다. 아직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이창익 대표는 어느새 나누며 사는 모습까지 아버지 이종우 회장을 닮아 있었다. 글 이지연 작가/사진 송은지